

인터뷰 법무법인 광장 정신 변호사

“변호사는 남 도울 수 있어 매력”

삼성전자, SKT 거쳐 연대 로스쿨 졸업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지난 2월 1일부터 법무법인 광장에 출근하고 있는 정신(33)씨는 삼성전자, SK텔레콤에서 약 7년간 근무한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에 도전한 경우다.

2002년 2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정씨가 6년 반 정도 근무하며 담당했던 업무는 기획 및 IR, 해외 홍보 업무. 이어 SK텔레콤으로 옮겨서도 IR 분야에서 활약한 정씨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전국의 25개 로스쿨에서 학생을 모집하자 모교인 연세대 로스쿨에 원서를 내 7년여만에 다시 신혼으로 돌아갔다.

기획, IR 등 담당

“삼성전자, SK텔레콤도 좋은 회사이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 로스쿨에 도전했습니다.”

정씨는 이어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되어 남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 직업에 매력을 느꼈다”며, “단지 돈만 더 벌리고 로스쿨에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신 변호사는 누구...

-연세대 경영학과
-삼성전자, SK텔레콤
-연세대 로스쿨
-법무법인 광장

도전정신을 높이 샀다.

로스쿨 2

학년 때 인

2010년 거

울방학 때

광장의 공

채에 지원

해 당당히

합격한 것

아직 취업

이 확정되

지 않은 로

스쿨 학생

도 많지만 정씨는 졸업 1년 전에 광장의 변호사로 채용 내정을 받은 셈이다.

삼성전자에 다닌 때 결혼한 정씨는 로스쿨 생활이 한층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2학년 여름엔 풀타임 아들이 태어나 육아의 부담까지 겹쳐지자 했다. 정씨는 그러나 연세대 로스쿨에 다니면서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고, 2학년 1년간은 학생회장을 맡아 봉사했을 만큼 모범적으로 로스쿨 생활을 해냈다.

2학년에 학생회장 봉사

앞으로도 꿈은 기업계 경험을 살려 M&A 등 회사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 특히 경영학과 법학을 접목한 시너지를 추구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말했다. 전문화를 강조하는 광장에서도 정씨를 이미 기업가 문명에 배치했다. ■



정신 변호사